

전국 시·도지사 당선·유력자 (2일 새벽 12시 35분 현재)



서울시장  
○오세훈(국)



경기지사  
○김은혜(국)



인천시장  
○유정복(국)



부산시장  
★박형준(국)



대구시장  
★홍준표(국)



대전시장  
○이정우(국)



울산시장  
★김두걸(국)



세종시장  
○최민호(국)



경남지사  
★박은수(국)



경기지사  
★이철우(국)



전북지사  
★김관영(민)



충남지사  
★김태훈(국)



충북지사  
★김영환(국)



강원지사  
★김진태(국)



제주지사  
★오영훈(민)

법례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힘 무=무소속  
★=당선 확실 ○=당선 유력 ●=경합



출구조사결과 시청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총판선 거대책임위원장과 지도부가 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대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환호하는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대표상황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등 지도부가 환호하고 있다. /뉴스

## 與, 압승 예측... “尹정부 성공 뒷받침·민주당에 회초리”

이준석 “국민 성원에 감사...대선 승리 이어 지방행정 기회”

권성동 “정권출범 20일...尹대통령 성공 위해 與에 표 몰아줬다”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서 압승을 거둔 것으로 예측되자 한껏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광역단체장 국민의힘 13·더불어민주당 4’라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의힘 대표상황실은 “이겼다”는 환호성과 박수로 가득찼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손뼉을 치며 일어나 배현진 최고위원과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했다. 여당이 열세를 보인 지역에서도 “꺾지만 잘 싸웠다”며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TV 3사가 이날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17곳 중

국민의힘이 10곳, 더불어민주당이 4곳에서 앞섰다. 경합지는 경기·대전·세종 등 3곳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JTBC의 출구조사·예측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힘이 9곳, 더불어민주당은 4곳에서 각각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대전·세종·충남 등 4곳이 접전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KBS·MBC와 현장 인터뷰에서 “국민이 보내준 성원에 감사하고,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행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승부처인 경기도

대해선 “워낙 박빙 승부가 예상됐고 끝까지 집중하면서 살피겠다”고 했다.

호남권 결과에 대해선 “출구조사 결과가 이기는 수치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주지한 광주시장, 조배숙 전 복지사, 이정현 전남지사,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가 좋은 득표율을 얻었다”며 “매 선거 때마다 2~3%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명실상부한 호남 제2당 위치로 호남 정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런 계량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선 “계양구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당세가 우위에

있는 곳이라 선택했다고 본다”고 혹평한 뒤 “지난 총선에 비해 양당간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은 저희는 명분 있는 공천을 했고 이 후보 출마는 명분이 부족했다. 계양구 주민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상황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승리하리라 예측했지만 저희 생각 이상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0일 밖에 되지 않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줘야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잘 할 거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윤 정부에 대해 힘을 밀어주겠다는 뜻이 강한 것이 이번 출구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 민주, 참패 예측에 긴급 비대위...지도부 총사퇴 논의

오늘 오전 10시 비대위...총사퇴시 조기 전당대회 갈 듯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패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선거 다음날 비공개로 비상대책위원회회의를 열어 지도부 총사퇴를 논의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비대위는 2일 오전 10시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지도부 총사퇴 여부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구조사에서 경합 중인 곳이 세 군데 있지만 우리

로서는 참담한 결과”라며 “이런 결과에 지도부가 책임지는 일은 늘 상 있어왔다. 내일 지도부 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책임과 관련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방선거 투표종료 직후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 3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민주당은 광주·전남·전북과 제주 등 단 4곳에서만 앞섰다.

경기·세종·대전 등 3곳은 경합

지였고 나머지 10곳은 모두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합지 3곳도 민주당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 근소한 열세였다.

민원 경합지 3곳을 접전 끝에 모두 국민의힘에 내준다고 하면 민주당은 지난 2006년 4회 지방선거에 비견할 만한 참패를 기록하게 된다.

당시 한나라당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세 자리를 싹쓸이 하는 등 12곳에서 승리를 거둔 반면 현재 민주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은 전북지사 1곳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열린우리당 탈당파가 떠나고 남은 새천년민주당이 이름을 바꾼 당시

민주당이 2곳에서 이기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김태환 후보가 무소속으로 제주지사에 당선된 것까지 더한다고 해도 4곳에 불과하다.

반세 경합지 3곳의 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도부 총사퇴가 불가피할 것인 전망이다.

지난 대선 패배로 인해 꾸러진 민주당 비대위는 당초 이번 지방선거를 치른 뒤 오는 8월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그 체제가 이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도부 총사퇴로 비대위가 해산될 경우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지도부가 전당대회 준비를 맡거나 별도의 임시 위원회를 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

나눔이 행복한 광산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30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조사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84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